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자민과 작별하며. 앞의 운을 써서

別子敏 用前韻

타향에서 몸져누워 한 해 이미 늦었는데
오늘 저녁 그대 보냄 견딜 수 있겠는가.
인생은 예 이르러 헤어짐이 괴로웁고
티끌세상 종전부터 만나기는 어렵다네.
서울의 옛 동산은 천 리의 꿈속인데
하늘 가 가는 길은 만 겹의 산이로다.
한양 땅 옛 벗들이 안부를 물거들랑
요동의 관유안(管幼安)이 되었다고 하여주오.

臥病殊方歲已闌
可堪今夕送君還
人生到此分離苦
塵世從前會合難
日下故園千里夢
天涯歸路萬重山
秦中舊侶如相問
終作遼東管幼安

※요동의 관유안(管幼安)이~ : 삼국시대 위나라 관녕(管寧). 황건적의 난을 피해 요동으로 갔을 때 따르는 사람이 한 고을을 이루었고, 서당을 열어 이들을 가르쳤다. 석주 자신이 강화에 은거하여 후진을 양성하며 지낸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연성객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부치다

延城客舍 寄人

전쟁 티끌 어디선들 편히 살 수 있으랴만
서강을 하마 건너 다시 서쪽 향하네.
양쪽 땅 이별 근심 얼굴 살적 바꿨었고
7년 만의 귀향 꿈에 가는 길만 어지럽다.
빈 성엔 온 종일 오는 이 하나 없고
옛 나라 남은 봄에 우는 새만 있구나.
한 차례 비바람에 한식도 다 지나니
고개 돌려 무성한 풀 차마 보지 못하네.

兵塵何地可安棲
已渡西江更向西
兩地別愁容鬢換
七年歸夢道途迷
空城盡日無人到
舊國殘春有鳥啼
風雨一番寒食過
不堪回首草萋萋

靑坡 權寧翼 本院 副總裁 八旬記念 出版記念會

정파 권영익 본원 부총재 팔순기념 출판기념회

권영익 부총재 팔순출판기념회를 공군회관에서 가졌다.

지난 9월 7일 오후5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 3층 대연회장에서 권중동 前 노동부장관, 권익현 前 민정당대표, 권해옥 헌정회 사무총장, 권병홍 본원고문, 권영한, 주연 본원 부총재, 본원 사무총장, 권정택, 신순범 前의원, 친·인척 권영홍 (주)대우센터회장, 이용화 前지방병무청장, 김포지역 유지 등 2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파 권영익 8순 출판기념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노무수 조선침뜸연구원장의 사회로 식전행사로 홍순철씨(前 서울시 시의회)의 색스폰 연주가 우렁차게 펼쳐졌으며, 이어 권오태 씨(권영익 회장 장남, 대개전설(주)이사)가 인사를 표했다. 이어 자녀(아들·딸)들이 권영익 내외분에게 8순축하 선물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권중동 前 노동부장관, 신순범(4선의원, 현(재)만광장학회 이사장), 김영홍((주)대우센터회장), 권정택(기로회장), 이용화씨(前지방병무청장)의 고무적인 축사가 있었다.

다음 권영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노당익장(老當益將) 과거에 머물지 마라. 노년의 삶은 자연과 하나다. 그래서 노년은 청춘보다 꽃보다 푸르다. 그간 덧없이 흘려온 세월 속에 주어진 生命의 순간 순간을 잡고,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 왔으며 이제 8순에 이르게 되어 평생 걸어온 자취와 그간 잡지·일간지에 기고해온 것을 모아 "風流(풍류)의 痕迹(흔적)"이란 제목으로 집필해 후세에 남기고저 오늘 출판기념회를 열게 되었으니 성찰해 주시옵고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내일도 미래도 젊게 굵게 새롭게 生을 찬미하면서 제2의 인생을 높게 창출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청파 권영익 본원 부총재(추밀공파 34세)는 어린 시절부터 효제충신의 정신으로 선조님의 묘역을 봉축하고, 비석을 세워 후손들의 귀감과 정신적인 지주로 후세에 길이 남기는데 크게 진력했으며 또한 젊은 청년기에 언론계에 몸담아 종군기자로 활약했으며, 더불어 인천에 향도상업전수학교를 설립하여 후진육성에 크게 진력했다. 이어서 출판 국민교양사를 운영하면서 중앙정치연구회장으로서 월간지 '중앙정치'를 간행했다. 민자당 김포지구당 운영위원장, 경기도 행정자문위원 민자당교육분화위부위원장, 안동권씨중앙종친회 사무총장, 충장공권율장군기념사업회장, 동신산업(주)를 설립해 대표이사 겸 회장에 취임해 자동차 부품 제조·생산 판매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기 했다.

이어 1990년 안동권씨기로회장으로서 원로문사진작에 진력했으며 이어서 국가개혁국민총연합부총재로 밝은 사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현재는 (주)정근산업, 청파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연락처 : 010-8024-1971

〈글·사진 권오복 편집위원〉

권세목 대종원 부총재, 의성향교 전교 취임

竹軒 權世穆(죽헌 권세목) 씨(의성, 75, 북야공파 37세, 문소관광사장)가 지난 8월 30일 유림총회에서 의성향교 전교로 추대(취임)하였다.

의성향교는 의성김씨문중, 김해김씨문중, 아주신씨문중, 해주오씨문중, 안동권씨문중, 영천이씨문중 6개 문중 중심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권세목 신임전교는 前 의성종친회장, 경북도의원, 조계종 16교구 의성고운사 신도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 대종원 부총재로 있으면서 오문 문사진작에 크게 활동하고 있다.

〈권혁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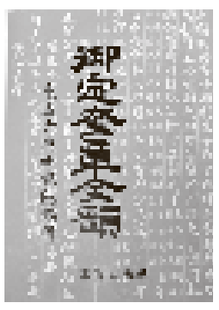
'어정규장전운(御定圭章全韻)' 東湖 權相穆 원장 번각발행

동호 권상목

成均館典儀 東國古典硏究院長인 東湖 權相穆 씨가 2012년 6월 30일 A4판 188면 어정규장전운(御定圭章全韻)을 三育出版社(刊)으로 번각발행했다.

이 '어정규장전운'을 규장각 연경재 장판(藏板) 원본으로 영인하여 일종의 번각(飜刻) 발행을 하였다. 보통 '규장전운'으로 칭하는 이 운서는 축약되어 한시인들의 수첩 등에 부록으로 실려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본을 4×6배판 크기로 선명히 번각한 것은 처음이다.

이 책은 한문전용시기에도 희귀하여 그 후 복사본이 있기는 하나 실용한자운을 모두 외운다는 것은 어려울 듯 하여 열람하기 쉽게 간소한 책자로 편집 출판하였다.



한시(漢詩)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한문(漢文)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필요한 운서(韻書)라 할 수 있다.

연락처 : 02)2269-9391

〈권오복 편집위원〉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언어의 역사

언어의 기원

언어의 기원에 관하여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해 왔지만 특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간의 진화과정의 어느 순간에서, 원시적인 언어 수단이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말을 통한 의사소통 체계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원시 언어'나 '미발달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집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사회에서 언어가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상상할 수도 없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며,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고 우리의 조재를 알린다.

언어의 기원을 10만~5만 년 전으로 추측하는 연구도 있다.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으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은 목의 후강이 내려앉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약 30만 년 전에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목의 구조가 이와 같이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다. 그런데 목의 후강 저하가 자음 발성을 가능하게는 하지만, 언어를 체계적으로 구사하는 데는 해부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두뇌의 협동이 함께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기원을 3만 년 전부터라고 하는 학설이 도출된다.

근래 유전학의 발전은 눈부시다. 언어유전인자의 존재를 가정하기도 한다. 유전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10만 년 전에 유전인자의 진화과정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언어 기원설에 몸짓이론이 있다. 인간이 언어를 구상하기 이전에 얼굴 모양·손발놀림·몸짓 등으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 인간은 해부학적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이와 같은 원시적 의사소통 수단에서 점차적으로 언어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몸짓이론 학자들은 주장한다.

인간의 언어 사용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고는 할 수 없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이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어떤 시대의 동물이든지 다른 동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학설이 유력하다. 즉 그 동물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언어는 호모 사피엔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언어는 영구적이고 고정적이 아니라, 역사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부단한 흐름 속에 있으며, 언제나 변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언어가 때로는 죽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생기를 되찾기도 한다는 학설도 있다. 그런데 인류가 살아 있는 한, 언제나 언어는 존재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인다.

한편으로는 지구상의 모든 언어가 사라져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언어학자가 아닌, 나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을 비판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상식이다.

인간은 신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말을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니 언어는 편리하고도 여러 가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겠다. 여러 학설이 있는 것은 앞에서 소개했지만, 어쨌든 언어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 주는 특징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 고등동물 중 가장 돈보이는 유인원(類人猿)의 경우도 인간과 같은 언어를 갖지는 못한다.

최근에 많은 언어학자·동물학자·심리학자들이 동물도 교육에 의하여 언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동물 언어 실험을 실시한바 있었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반복적인 집중학습에 의해서 몇몇 단어를 습득했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얻기도 했지만, 정밀하게 조새해 본 결과 이러한 문장 사용은 단지 자극에 대한 반응 또는 단순한 모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무리 고등한 동물이라도 인간과 같은 언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인간만이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습득의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실험이 입증해 주고 있다. 한 마디로 언어는 호모 사피엔스의 특권인 것이다.

■ 역사기행

풍운(風雲)의 운현궁(雲峴宮)

▣ 향촌 권오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운현궁은 조선조 제26대 왕인 고종(高宗)이 등극하기 전에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이 살았던 집이다.

이 저택은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소재하며 덕성여대와 인접해 있으며 그 옆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소학교(1894년, 고종31년)로 개교한 교동초등학교가 있다.

운현궁의 명칭유래는 서운관(書雲觀)이 있던 고개에서 그 지명을 따서 운현궁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서운관은 고려시대부터 천문, 역수, 측우등을 맡아보던 기관인데 조선시대에도 이를 계승하여 세종 때에는 이를 관상감이라 하였다.

운현궁의 정문을 들어서면 정문 우측 수직사는 운현궁의 경비와 관리를 하던 곳이다. 앞마당을 지나 소대문을 통과하면 1864년(고종1년)에 지은 노락당(老樂堂)과 노안당(老安堂)이 있고 1869년(고종6년)에 지은 이노당(二老堂), 영노당이 있다.

그리고 운현궁에서 창덕궁을 쉽게 드나들 수 있게 운현궁의 금위영(禁衛營) 사이에 통용문인 공근문을 두었다고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담으로 그 문을 막고 표석에 문이 있었다는 기록만 남기고 있다.

또한 1912년에는 양관(洋館)을 세워 접빈객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노안당은 대원군이 국정을 의논하던 방이고 노락당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가례를 행한 곳이며 왕비 수업을 받던 곳으로서 안채로 쓰여 졌고 이노당은 별당이다.

운현궁은 대원군이 별세한 후에 장자인 이재면을 거쳐 손자인 이준용에게 상속되었으나 6.25사변후 저택 상당부분이 매각되고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한다.

이제 운현궁과 관계되는 인물과 사건을 알아 볼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주역은 대원군이다.

고종이 1863년 즉위하자 이하응은 대원군에 봉해지고 섭정이 시작되었다.

그의 정치 이념의 공과는 여러 면에서 논할 수 있으나 당파를 초월한 인재의 등용, 서원의 철폐, 법률제도의 개혁 등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복궁의 중건으로 국내적으로는 재정의 궁핍과 민생고가 가중되고 국외적으로는 쇄국정책을 실시하여 국제관계가 악화 되었으며 외래선진문명을 신속히 받아들이지 못하여 국가 발전에 지체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그는 임오군란(壬午軍亂) 등으로 정치노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서 대원군과 임오군란에 대한 것만을 살펴볼 것 같으면 임오군란은 1882년(고종19년) 6월 9일 조선의 구식군대의 봉기로 시작 되었다.

원인은 1882년 군대 편제개혁에 의한 별기군(別技軍)을 별도로 두고 일본인 교관으로 하여금 신식군대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이들과 구식 군대 간에는 차별화로 인한 불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므로 구식군대와는 상대적으로 미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때에 선혜청(宣惠廳)에서 13개월이나 밀렸던 봉급의 부당한 지급과 심지어 모래 섞인 봉급미가 지급되어 이를 선혜청 관리의 농간이라고 믿고 그 불만이 구식군대에서 터져 나와 난동으로 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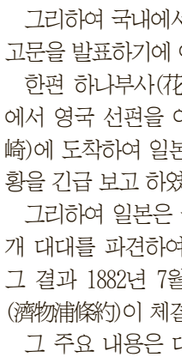
차제에 난병들은 그 해결책을 얻으려고 대원군에게 진정하며 간곡히 애소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은 표면상으로는 난병을 달래면서 비밀리에 난병의 주동인물인 류춘만(柳春萬), 김장손(金長孫) 등에게 밀계를 주어 난병과 행동을 연계하니 난병들은 민씨 및 일본세력에 대한 배척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드디어 난병들은 군기고, 포도청, 의금부를 습격하는 한편 서대문 밖에 있던 일본 공사관을 불질렀다. 일본 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는 인천으로 도피하였고 또한 일본인 교관 육군 공병 소위 호리모도(堀本禮造)와 일본인 13명이 살해되었다.

대원군은 왕명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하여 반란을 진정시키고 군제를 복구하고 개편하였다. 그 별기군은 없어졌다.

뒤이어 민비의 실종을 흥거(薨去)로 단정하고 국상까지 치를 것을 공포하게 되었다. 당시 민비는 변복하여 충주로 가서 충주 목사 집에 피신하였다.

이에 민씨 일파는 천진(天津)에 가있던 김윤식(金允植) 등에게 청(淸)나라의 원조를 요청하여 청(淸)은 일본(日本)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차제에 호기를 맞아



파병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청(淸)은 1882년 7월 12일 오경장(吳慶長), 정여창(丁汝昌), 오조유(吳兆有), 마건충(馬建忠), 황사림(黃士林), 원세개(袁世凱)로 하여금 군함과 4만 5천의 군사로 조선에 유둔(留屯)하였다.

유둔 군진지에서 군무 필요하오니 대원군을 오도록 필답 요청하여 대원군이 도착하니 처음에는 군무 상 필요한 상의를 하는 척 하였으나 "태공(太公)은 외교가 서투른 것 같으니 남양만에서 배를 타고 천진까지 가서 황제의 유지를 받아야 한다."고하여 대원군은 7월 20일 천진에 도착, 7월 29일에야 이홍장(李鴻章)을 대면하였고 이홍장은 대원군에게 임오군란의 책임을 물었으며 군란을 두둔한 책임을 대원군에게 돌렸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본래 중국의 속방이라고 선언하여 정치 외교적 물의를 일으켰다.

청군(淸軍)이 조선의 궁궐을 경비한 한 달 만에 대원군은 피랍되어 8월 16일 보정부(保定府)에 죄인같이 호송되었고 그 후 3년간이나 연금되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대원군에 대한 유고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하나부사(花房) 일본공사는 인천에서 영국 선편을 이용하여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여 일본 정부에 임오군란 상황을 긴급 보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군함 4척과 보병 약 1개 대대를 파견하여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 결과 1882년 7월 17일에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이 체결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대일본국 변리공사 화방의질(花房義質)과 대조선국은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 부관 김홍집(金弘集) 간의 본조약 6조 수호조규약 2개조에 대한 조약을 체결 조인하였는데 조선은 배상금 50만원을 지불하며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시키며 일본에 사과하도록 하였다.

조선에서는 박영효(朴泳孝) 등을 일본에 수신사로 보냈다. 수신사가 일본으로 가는 선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여 게양하였고 그 태극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사용된 사례가 되었다.

임오군란은 대외적으로는 한(韓), 일(日), 청(淸)의 3개국의 미묘한 국제관계를 야기시켰고 대내적으로는 보수와 개화세력이 대립되어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전조가 된것이다.